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거북이를 그려 넣은 이유

낙산사 불사를 하면서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데, 스토리텔링을 위한 문양과 디자인 등이었다. 어른 스님들은 문화재에 대한 감각은 없으신지 기안을 내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들이 장인들을 설득해서 단청이나 석물들을 디자인을 조율했다.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을 받치고 있는 돌거북

특히 가장 많은 문양을 넣은 동물이 바로 거북이다. 원통보전을 들어가는 문을 금강문으로 만들어 사찰수호를 기원하려 할 때도 어른 스님들이 반대하셨는데, 당시 주지 스님이었던 정법 스님께서 승인하셔서 양 문쪽에 밀적금강(密迹金剛, 부처님의 비밀한 사자를 모두 알고 있다)과 나라연금강(那羅延金剛, 코끼리의 백만배의 힘을 가진)을 단청으로 그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금강문의 하단에 작은 거북이를 그려 놓아 불을 방비하는 신령한 동물의 역할을 하도록 해놓았는데, 그걸 알고 신경써서 보고 가는 사람들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 외에도 사천왕각 앞에 설치한 백화수각(白花水閣)을 디자

용·거북은 불 막는 水神

목조전불 방재 의미 담야

인할 때도 불을 끄는 역할을 하도록 커다란 거북이를 조각해 놓아서 수신(水神)으로서 불을 끄는 역할을 다하도록 조각을 시켰다.

경북 울진의 아름다운 산천 속에 자리한 불영사 대웅보전(보물제 1201호)에는 다른 절에는 없는 특이한 조각이 있는데 바로 대웅보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마리의 거북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불이 나지 않도록 방재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거북이는 고대 인도의 설화에 뿌리를 둔 불전설화에도 많이 나온다. 자타카라고 불리우는 본생담에 보면, 하늘을 나는 두루미들과 친구가 된 거북이가 설산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북이는 두 마리의 두루미가 입에 막대기를 물고 다시 그 막대기 중간을 거북이가 물고 하늘을 날아간다. 그러나 사람들이 희한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소리를 질러 놀려대자 분을 참지 못하고 욕을 하느라 입을 벌리는 순간 떨어져 박살이 나는 거북이의 이야기가 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다.

평강(平康) 채(蔡)씨의 시조도 사실은 거북이라고 한다. 강원도 평강군의 채씨

소(蔡氏) 전설에 의하면 어느 부잣집의 처녀가 밤마다 찾아와 자고 가는 푸른 옷 입은 남자의 아이를 배었다. 그의 정체를 알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 옷가에 찔러 놓고 낮에 마을의 장정들이 모두 이 실을 따라가 보니 마암소리는 연못에 사는 큰 거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수신(水神)인 거북은 단순한 거북이는 아닌 것 같다. 심장생에도 등장하는 신령한 거북이는 용, 봉황, 학과 더불어 사령(四靈)에 속하는데, 본담의 생각으로는 용의 아홉 자식 중의 하나인 비희(鳳凰)라고 봐야한다. 비희는 패하(覇下)라고도 하는데 그 모양은 거북이를 닮았고, 무거운 것 지기를 좋아한다. 신라시대 이후에 많은 고찰(古刹)의 비석들을 지고 있는 귀부(龜趺)가 바로 이 비희이다.

원래 용신이 물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서 입에서 물을 뿜어내면 비가 내려 불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거북이 모양을 한 용자(龍子)인 비희가 바로 불영사 대웅보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담은 우연히 추사(秋史)가 남기고 간 주인 없는 이름 하나를 범호로 삼고 있는데, 구연(龜淵)이라고 한다. 낙산사 관음지 연못에 사는 거북이가 아무 때나 쉬고 노는 것을 보고 부러웠는데, 마침 그 이름을 보고 가끔 쓰고 있다.

비구는 원래 갈사(乞士)라 주워쓰는 것을 뜻할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허락 없이 이 범호를 가져다 쓴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기회를 빌어 강호(江湖)에 공자하고자 한다.

얼마 전 내장사 대웅전이 불났다. 안타까운 일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사찰의 건물들은 거의 목조건물이라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당대의 명필이 물수자를 써서 불이 면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기회를 빌어 강호(江湖)에 공자하고자 한다.

얼마 전 내장사 대웅전이 불났다. 안타까운 일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사찰의 건물들은 거의 목조건물이라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당대의 명필이 물수자를 써서 불이 면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기회를 빌어 강호(江湖)에 공자하고자 한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통도사에 매화 피니 삼라만상 거기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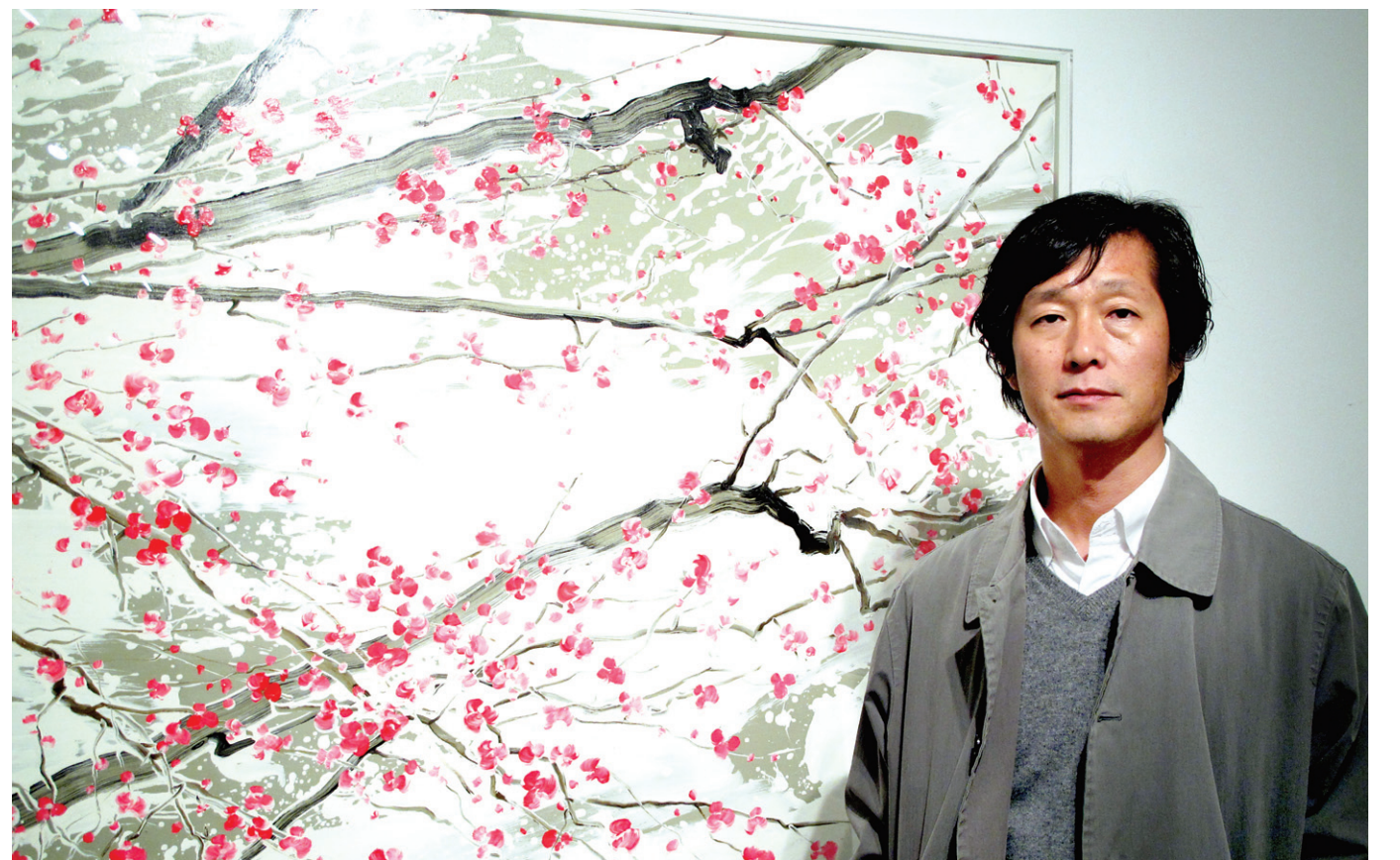
차규선 작가 개인전

사찰 여행을 즐기는 작가는 통도사 앞 매화나무를 보고 환희심이 일었다. 오랜 시간 구상을 통해 단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으로 작품을 펼쳐내는 작가의 작업은 매화나무의 감동을 새기고 새겨 일필지하에 펼쳐냈다. 독특한 회화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차규선 작가의 분청사기 기법은 이렇게 통도사 매화나무를 화폭에 피워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아내고 있다.

차규선 작가의 개인전이 21일까지 종로구 송현동 이화익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경주 남산의 소나무, 양산 통도사의 매화나무, 제주도의 잠목 등 자연의 향기를 담아냈다.

어렸을 적 어머니를 따라 남산에 위치한 백운암을 오르내리던 작가는 가늘고 긴 소나무를 감상하며 무한한 자연의 세계에 빠지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만물의 근본이며 작품세계의 영원한 원천인 것이다.

“작가가 어렸을 적 어디에 자랐느냐는 그의 작품세계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죠. 제가 자란 곳이 천년고찰 경주이다 보니 그곳의 자연과 불교 문화는 제 일상 속에 스며들었고 제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결국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내듯이 제 취향 성향 이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분청사기 기법으로 작업을 해온 차규선 작가의 개인전이 21일까지 종로구 송현동 이화익갤러리에서 열린다. 차규선 작가가 자신이 그린 통도사 매화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주 남산 풍경 영감

제주 자연 빛깔과 느낌

분청기법 20여점에 펼쳐

21일까지 이화익갤러리서

“작가가 어렸을 적 어디에 자랐느냐는 그의 작품세계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죠. 제가 자란 곳이 천년고찰 경주이다 보니 그곳의 자연과 불교 문화는 제 일상 속에 스며들었고 제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결국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내듯이 제 취향 성향 이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01년부터 분청사기 기법을 응용해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차 씨는 지난 10여년간 수많은 방법들을 실험하며 다양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그렇다면 분청사기 기법으로 어떻게 회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일까?

“일단 도자기 흙을 기본으로 다른 고착 안료 등을 혼합합니다. 이를 캔버스 표면에 바른 다음 분청사기의 표면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아크릴 물감과 같은 흰색 안료를 뿌리거나 큰 붓으로 화면 전체를

덮칠까요. 이후 나무주걱이나 나뭇가지, 부러진 붓 등을 이용해 풍경이나 사물의 형상을 그리거나 긁어내서 작품을 완성시키니다”

이렇게 작업한 작품 대부분은 동양적인 느낌이 물씬난다. 이는 동양문화를 좋아하고 이에 젖어 있는 작가의 성향과도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분청사기의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표면 문양과 색채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분청사기의 귀얄문, 인화문, 텀벙 기법 등은 회화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재료의 특성 때문에 도자기에서는 표현이 불가능한 요소들을 회화에 끌어들이어 어떻게 회화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지난해 작가는 1년 동안 제주도에 머물며 제주 곳곳의 색감과 느낌에 큰 영감을 얻었다. 제주의 잠목, 숲, 꽃, 바다는 작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오랜 시간 축적된 그 감동을 작품에 쏟아부었다. 이렇

게 제주의 자연은 고스란히 캔버스에 옮겨졌다.

“자연은 비단 저편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이감, 자연이 갖고 있는 어떤 기운들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로지 그림 그리기 외에도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작가는 세속적 욕망을 좇기 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통한 예술적 표현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여긴다. “현실에 살면서 세속적 욕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명예나 부에 얽매기 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통해 저의 존재를 느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림 작업은 저에게 있어 구도의 길과 같은 것이죠”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매방-한영숙류 승무 한무대에

예술컴퍼니 춤매 창작 공연 11월 20일 남산국악당서

한국예술컴퍼니 춤매가 11월 2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남산국악당에서 제1회 창단공연 갖는다. 춤매는 이번 공연에서 쌍승무, 창작탈춤, 오살풀이춤, 교방살풀이춤, 춤매 북춤, 교방입춤, 태평무, 시나위춤 등을 선보인다. 또 이와 더불어 판소리, 가야금 병창, 25현구 공연도 진행한다.

관음보살 명화를 향해 추는 쌍승무는 음악의 조화를 통해 자비로운 보살의 화연을 표현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중요 무형문화

재 27호로 지정된 이매방류 승무와, 한영숙류 승무를 한 무대에 선보여 주목된다.

양혜정 대표는 “서로 성격이 다른 이매방류와 한영숙류가 한 무대에서 공연되는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 이를 통해 화합과 조화를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자비의 뜻을 헤아려 천승의 범무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관세음보살의 무한자비를 통해 나와 우주 하나가 되는 의미도 함께 담아본다”며 취지를 전했다.

또한 춤매는 이번 무대에서 자신들의 예술적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전통춤을 재미

있게 해석한 창작 판소리 ‘A형 이야기’는 스무 살이 넘도록 한번도 연애를 못해본 남자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표현했다.

양 대표는 “춤매는 춤삼매경의 줄임말을 뜻합니다. 악(樂) 가(歌) 무(舞)의 미적 가치를 담고자 하는 것이 춤매의 창단 취지죠. 전통 예술의 맥을 잇고자 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전통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새롭게 펼쳐내고자 합니다. 각자 태어난 해도 성격도 성향도 다르지만 하나로 뭉쳐 전통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010-6501-1054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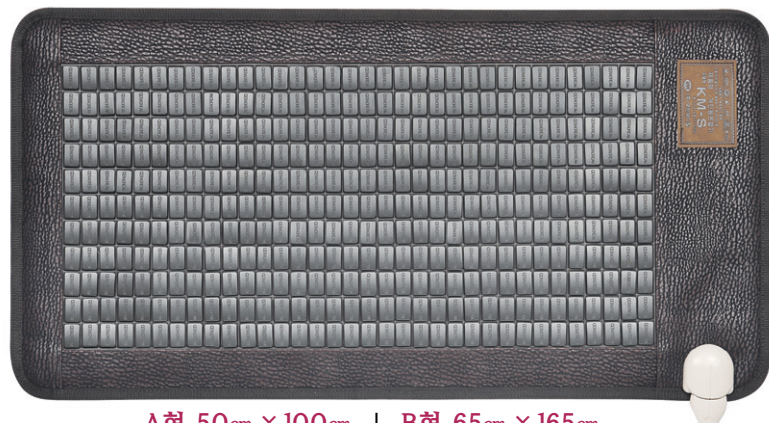
춤매는 11월 20일 남산국악당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을 연다.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쭈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 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cm x 100cm | B형 65cm x 165cm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 (귀사문석 베개) 발은 따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켜주세요!

- 제조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울정동 115번지
- 판매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차단)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자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영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영기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영기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맥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뒷면) 6cm]

기상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헌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80962 (주)원대불교신문사